

나는 이렇게 육추했다

조 병 찬

〈소설종계원〉

- ◇···근간 많은 양계인들이 육성율이 낮아 걱정 하는 것을 많이본다. 재래의 방법으로는 대···◇
 - ◇···규모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본인은 한홍목장에서 육추경험 결과 20주···◇
 - ◇···령까지 96%의 좋은 육성율을 얻었다. 양계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분이나 대규모 양···◇
 - ◇···체를 하고 있는 분에게 육추실을 특별히 만들지 않고도 산란체사(평사)라면 어느 곳에···◇
 - ◇···든지 간단히 육추할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저의 육추시설과 육추일기를 소개···◇
 - ◇···하고자 합니다. ◇

1. 입주준비

1. 청소 및 소독

① 계사내의 기구와 비품은 완전히 밖으로 끌어내고 깨끗이 세척한 후 소독을 해야한다.

약품은 올소제 200~400배 <가금졸 벤졸 양잿물 등도 좋다>로 1차소독 하고 저멕스, 료세논 부沦센 600~800배액으로 2차소독을 실시한다.

② 훈증소독을 실시 할 것 - 100입방척(가로×세로×높이尺)마다 과탕산카리 17.5g 포르마린 35cc를 질그릇에 준비하고 과망간산카리 부터 넣고 호르말리를 부어 넣은 후 1일간 가밀폐해 둔다.

③ 본인의 경우 육추실엔 관리자와 담당기사 외엔 출입을 금지시켰다. ※사장님도 출입을 금하고 밖에서만 시찰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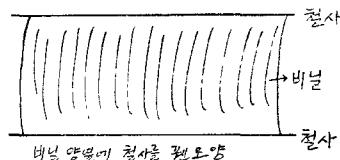
④ 소독판을 꼭 설치하고 항상 마르지 않게 하며 소독수와 수건 계사용신발 까운 등을 준비한다.

⑤ 관리자는 위생관념이 철저 해야하며 성계 관리자와는 접촉을 금하고 외출때마다 소독수로 손발을 닦고 계사에 출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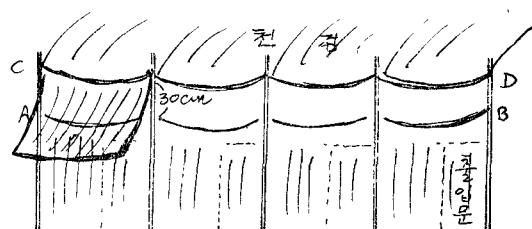
치한다.

b. 6尺 비닐 양 옆끝에 철사를 끼어 두장을 서로 붙여 그림 ①과 같이 만든다.

그림①



c. 雷氏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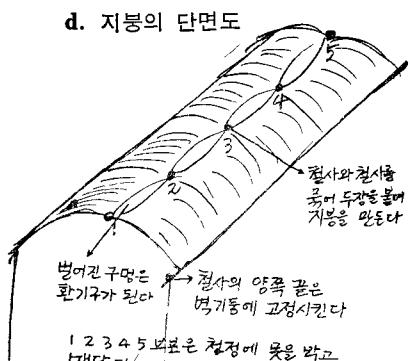


- i. 비닐의 윗 부분만 철사를 끌어 A.B의 양 끝에 팽팽히 끕는다.
 - ii. 천정마다 30cm 사이를 뛰우므로 창문이 된다.
 - iii. 기둥은 18자마다 세우고 벽이 완성되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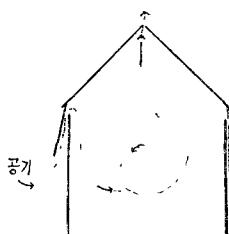
로 C와 D에 창문 덮개를 붙인다.

iv. 칸마다 문을 달고 칸막이의 철망은 높이 2척의 철망(병아리가 못 빠지게)으로 하고 계사쪽의 크기만큼 잘라야 육추시설을 확장할 때 편리하다.

d. 지붕의 단면도



e. 환기구조



2. 육추시설

내부시설

그림과 같은 육추시설은 어떤 계사든지 설치하기 쉽다. 비닐 0.03mm와 철사만 있으면 되므로 재료비가 적게들고 3차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명이 길고 경제적이다. 병아리가 크는대로 옆벽의 덮개를 천정에 올려붙이고 다시 벽을 만들어 마음대로 확장할 수 있다.

특징은 환기가 잘되고 보온에 편리하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육추가 가능한다.

① 터널과 칸막이가 끝나면 바닦엔 습기를 막기 위해 비닐을 깔고 깔짚을 10~20cm 길이로 짤라 10cm가량 깔고 밟아 5~6cm가 되게 한다.

② 한칸마다 직경 2m(500수용) 삿갓을 놓고 11월~2월 육추시엔 보조난로 하나씩 놓으며 3~6월엔 삿갓 안에 31공탄 난로 하나만 설치한다.

③ 난로마다 병아리가 난로구멍에 들어가지 않게 철망을 친다.

④ 삿갓주위에는 높이 50cm 정도의 침가드를 설치한다.

⑤ 깔짚은 왕겨 대패밥 텁밥 벗짚을 사용할 수 있으나 벗짚을 쓸 때는 잘 말려서 먼지를 잘 털고 사용해야 한다.

입추 24시간전에 할 일

① 입추 일주일 전에 입추준비를 완료하고 3일 전에 난로마다 불을 넣고 온도 조절을 해봤다. 온도는 삿갓끝에서 병아리 어깨높이에서 32°C~33°C 실내온도 25°~26°C로 높인다. <병아리를 넣으면 1~2° 올라간다. >

② 소독약 저멕스 600배액으로 충분히 소독을 한다.

③ 점등시설을 점검하고 전기가 없는 곳은 등을 준비한다.

④ 초생추 사료와 초이사료를 준비

⑤ 약품은 소독약 치료약 항생제 영양제 콜탈을 준비한다.

⑥ 육추의 기록부를 준비한다(매일 매일의 계획표, 급수 급이 시간표).

⑦ 온도계, 저울, 소화기구준비

⑧ 구입한 병아리의 표준체중, 표준급여량 점등표 방역위생 계획서를 준비해 놓고 비교하면서 키워야 한다.

육성관리 프로그램

사료 : 초이사료 1~3일령 초생추사료 4~40일령 중추 41~100일령 대추 101~150일령 산란 151~도태시까지

○뉴캣슬예방접종 : 1회 14일령(생독) 2회 35일령(생독) 3회 100일령 4회, 3회이후 4개월마다

○계두 : 70일령

○구충 : 60일령

○디비킹 : 120일령

○목시辱예방 : 21일령~63일령 항생제 영양제는 입추후 3일간, 이동, 접종, 털갈이, 환경이 불량할 경우 투약한다.

제1주령 관리법

1. 첫모이주기 : ① 첫모이는 부화된 시간과 날황의 소화정도를 참작하여 주는데 대략 부화 후(발생) 24~45시간 안에 주는 것이 좋다. 억지로라도 물먹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② 항생제보다 영양제를 물에 타 주는 것이 설탕물이나 인삼의 찌꺼기(뿌리, 줄기)를 삶은 물을 주면 피로회복과 항병력 질병예방에 아주 좋다. 물은 항상 청결해야하고 2~3번 자주 갈아 주어야 한다.

③ 반드시 48시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배를 만저보아 말랑말랑 하고 날개의 주익 것이 나오기 시작했을때 또 병아리가 열심히 모이를 찾아 다닐 때 주는 것이 좋다. (※시간이 늦은 것보다 빠른 것이 좋다)

④ 1주일간은 1일에 5~6회로 나누어 주며 매일 첫모이 줄때는 식욕이 제일 왕성하므로 1일량의 $\frac{1}{2}$ 을 주는 것이 좋으며 마지막 모이는 약간 적게 주므로서 식체를 방지할 수 있다.

⑤ 약 3일간은 물로 개어주고 이후는 마른모이를 주어야 한다. 굽이 시간은 바꾸지 말고 굽이기는 충분히 만들어서 골고루 먹게 해야한다.

⑥ 첫모이 사료는 시중의 원전배합 초이사료를 쓰거나 특별히 배합해서 준다. 원전배합 초생추사료를 주어도 되나 단백질이 높아 소화율이 좋지 않아 항문에 지저분하게 뚱이 붙는 것을 볼 수 있다.

⑦ 초이사료는 싸라기 옥태(옥수수를 가늘게 빻은 것)를 한나절 물에 불렸다가 주어도 되는데 본인의 경우 황옥태 80% 밀싸라기 20%로 혼합하고 100수당 노른자 1~2개 곱게 부셔서 섞어 물에 개어주는 것이 가장 좋았다(손으로 쥐었다놓아 부스러지지 않을 정도면 좋다).

⑧ 첫모이사료에 단백질이 낮은 사료를 주는 이유는 병아리마다 발생시간이 다르므로 병아리의 활력에 따라 모이를 찾아 먹기 때문에 먹는 놈은 발육이 월등히 빠르므로 발육을 약간 지연시키므로 육성시 발육의 차를 줄일 수 있다.

⑨ 굽이방법은 100수당 초이사료 100g+노른자 1개씩 개어 새난좌나 두꺼운 종이에 골고루 뿌려준다. 모이를 주고나서 잘 찾아 먹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놈은 따로 모아 놓고 손으로 먹는 것을 가르쳐 주고 별도 수용한다.

2. 온 도

① 입후 육추실의 온도는 실내 26°C 샷갓꼴에서 어깨높이에 35~36°C 정도로 한다. 온도가

높으면 샷갓에서 멀리 떨어져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며 물을 많이 먹으며 높은 소리로 운다. 물을 많이 먹으므로 설사를 하고 항문이 지저분하여지고 깃털과 다리가 말라 가늘어 진다.

② 온도가 낮으면 샷갓 밑으로 모여들고 소화가 잘 안되어 식체에 걸리고 질병에 약하고 발육이 떨어진다.

③ 온도는 2~3일에 1°C 정도 내려주는 것이 좋으나 육추에 경험이 많은 사람은 온도계가 없이도 병아리의 상태를 보아서도 온도의 높고 낮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④ 연탄불은 보조난로와 교대로 갈아서 온도의 차를 줄인다. 불을 갈때는 보조난로의 불이 매우 좋도록 시간을 잘 맞추어야 한다. 샷갓육추의 제일큰 문제는 연탄불 관리라 할 수 있다. 2m의 대형샷갓의 경우는 연탄불을 갈때 한쪽발을 샷갓안에 밟고 불을 갈아야 하는데 이때 병아리가 발에 밟히는 수가 있으므로 샷갓안에 작은 벽돌을 놓아서 벽돌을 밟으면 좋다.

⑤ 연탄은 질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습 도

① 첫일주일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온도와 습도조절이라 하겠다. 온도만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 너무 전조하기 쉽다. 반드시 습도계를 쓸 필요는 없으나 첫 일주간은 60~70%의 습도는 유지해야 한다. 실내가 너무전조하면 물을 많이먹고 소화불량 체력쇠약, 깃털의 발생이 늦고 광택이 없고 다리가 약해진다. 또한 너무 과습하면 몸이 단단치 못하고 질병 기생충이 오기쉽다. 그러나 7일이 지나면 자체에서 나오는 계분과 흘리는 물 등으로 인하여 너무 과습해지기 쉬우니 전조에 힘써야 한다.

소규모 육추의 경우 수건을 실내에 걸어 놓고 난로위에 물을 얹어 놓는 것도 좋으나 대규모의 경우는 분무기로 2~3차례 물을 벽과 천정에 뿌려줘야 하며 이때 온도는 약간 높여줘야 한다.

4. 환 기

보온에만 주력하다 보면 창문을 밀폐해서 환기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환기가 나쁘면 좋고 나쁜 냄새가 나며 병아리의 식욕이 떨어져

고 깃털과 발육이 늦어진다. 온도를 잘 유지하면서 환기를 잘 시키는 것이 기술자인 것이다. 본인이 설계한 비닐터널식 육추사의 장점은 보온에 좋고 특별히 환기가 잘되는 것이다. 천정 부분에 자동적으로 환기구멍이 생기며 옆면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환기조절을 할 수 있다. 1주일이 지나면 옆면의 덮개 비닐을 상하로 2~3군데 자르고 창문 커튼식으로 밀어 놓으면 훌륭한 창문 구실을 하게된다.

5. 깔집관리

깔짚은 자주위에 깔아 주는데 겨울철엔 보온에 좋으며 좋은 미생물이 발효되어 건강에도 좋다한다. 그러나 물을 많이 흘려서 섞는 부분이 없어야 하고, 섞는 곳이 있다면 그부분만 걷어내고 물통놓았던 자리는 자주 옮겨주면 겨울의 보온에 아주 좋으며 중추사나 성계사로 옮긴 후 그대로 걷어내면 된다.

독자중 계분을 오래동안 굽어내지 않으면 까스가 많이 나오고 위생에 좋지 않다고 걱정하겠지만 경험결과 바닥에 깔짚을 20~30일간만 잘 관리하면 둥을 싸도 바닥의 열로 잘 말라 항상 깨끗해지며 경제적으로 매우 유익하며 계분작업시의 스트레스를 줄이므로 평사 육추때 꼭 권한다.

6 점 등

① 첫 일주일간은 24시간 종야접등으로 야간에 급수와 급이를 자유로 할 수 있고 적온을 잘 찾아 다니게 해줘야 한다.

단 전구가 너무 밝은 것은 야간에 좋지 않으므로 촉수가 낮은 전구로 바꾸든지 밤 8시 이후에는 전구에 종이 봉지를 씌워 급수기와 급이기만 보일정도로 해줘야 병아리의 안정에 좋다.

② 전기가 없는 곳엔 대한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위험성이 많다. 난로위에 등을 달지 말아야 한다. 작업도중 건드릴 염려가 없어야 한다.

제 1장 육추일기

○병아리구입 : 셰이버, 스타크로스 288송,

○입추수 4, 100수

○부화시간 71년 12월 21일 14:00시

○도착시간 12월 22일 1500시 분산시간 12월 22

일 16시

○실온 35°C(삿갓) 26°C(실내) 체중평균 35g

○구입처 한국 카아길(주)

① 병아리가 도착하면 상자를 육추실에 넣고 난로가까이 들어놓는다. 이때 반듯이 뚜껑은 벗기고 두상자 이상 쌓아놓지 말아야 한다(상자 안에 온도가 올라가 질식하는 수가 있다.)

② 실내는 어둡게하여 수송중 피로를 풀기 위해 1시간쯤 안정 시킨다.

제1일(※일령은 첫모이 먹는날부터 계산함)

오전 12시에 미지근한 물에 영양제 10%에 15g의 비율로 타서주고 찾아 먹지못하는 놈은 입을 대주어 가르쳐 줬다.

② 첫모이는 오후 3시에 부화후 48시간이 되는데 난황의 소화가 잘되어 배가 말탕말탕 거리고 모이를 찾느라고 열심히 돌아다니며 주의것이 나오기 시작 했으므로 첫모이를 주었다. 사료는 특별히 자가배합한 사료(황옥태 80% + 소맥 20%)에 100수당 노른자 1개의 비율, 즉 4, 100수당 황옥태 + 소맥(4kg)+난황 40개를 물로 개어 두꺼운 종이에 100수당 한주먹씩 풀고루 뿌려주었다(1수당 1g).

※잘찾아 먹지못하는 것은 골라 따로 수용하고 먹는법을 가르쳐 줌

2회째는 6시에 위와같이 주고 물은 떨어지지 않게 자주줌.

○금일의 도태수 3수(원인 · 장거리 수송으로 약 추가 생김)

○ 11 폐사수 12수(삿갓속의 난로속으로 들어가 타죽음)

※ 연탄불을 칼았을때 온도가 내려가므로 난로구멍으로 들어가 타죽음. 곧 철망으로 난로구멍을 막음.

○온도는 36°C(삿갓) 26°C(실내)를 유지하고 습도는 60~70% 유지하기 위해 파열된 난로마다 물그릇을 올려놓고 벽과 천정에 물을 분무기로 뿌려줌.

○야간엔 19.00시에 전구마다 종이봉지를 씌워 불을 약간 어둡게 하여 피로를 풀게하고 안정 시켰다. 단 물통, 모이통은 보일 정도로 해 준다(제7일령 즉 29일까지 계속함).

제2일령

○5. 30분에 전구마다 종이봉지를 제거하니 활기

있게 운동을 하며 모이를 찾는다.

병아리의 모이주머니를 만져보니 말랑말랑하게 소화가 잘되었다. 먼저 물통을 깨끗이 닦아내고 따뜻한 물을 준후 사료는 6회에 나누어 주었다

		황옥태 + 소맥	난황
1회	6시 30분	8kg	+
2회	10.00	4	+
3회	12.00	4	+
4회	14.00	4	+
5회	16.00	4	+
6회	18.00	4	+
누계		28	+ 140개

○한낮에 햇볕이 실내안으로 들어오자 여기저기 서 발가락 쪼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병아리 발가락에 햇볕으로 인하여 핏출이 빨갛게 보이므로 병아리는 빨강색을 쪼는 습성이 있다. 갑자기 번지기 시작하니 수라장이 돼버렸다. 발가락을 물로 세로 늘어지고 풀어 당기며 자기 발가락을 쪼아 먹는놈도 생겼다. 심한 것은 발가락이 모두 찔라지고 피를 출출 흘리는 놈까지 생겼다. 관리자 두사람이 이리뛰고 저리뛰고 매우 당황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곧 창문마다 가마니를 쳐서 약간 어둡게 해주니 좀 멀졌다. 50마리가 부상했고 10마리는 곧 죽을 것 같았다.

※사료에 식염을 약간 첨가하고 상처에 콜탈을 발라 격리 수용함.

※온종일 레드오를 크게 틀어 놓았다 어려서부터 큰소리에 속달되면 시끄러운 소음에 놀라는 것을 방지 하는데 좋다.

제3일령

지난밤의 외기온도 급강하로 실내온도가 30°C 이하로 내려가 식체에 결린놈이 많이 생겼다. 사료는 표준량 보다 적게 주었다.

(사료) (계란)

1회	6.50	8 + 40	금일의 폐사 2수(카니발
2회	9.00	4 + 20	리즘)
3회	11.00	4 + 20	수당평균급이량 7g
5회	13.00	4 + 20	" " 체중 40g
6회	17.30	4 + 20	
			28 + 140

※ 식체의 원인을 들어보면 급이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거나 한꺼번에 많은량을 출때 사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온도가 낮을때 잘 걸린다. 식체에 걸린 놈은 따스한 곳에 모여 졸며 모이주머니가 단단하게 뭉쳐있다. 심한 것은 몇 시간 절식시키고 물은 따뜻한 물을 준다. 소오다나 기타 약제사용은 해롭다. 식체의 예방과 치료에는 따스한 물을 먹이는 것이 제일 좋다.

제4일령

급이 시간을 변경함(관리자의 식사시간 참조)

(사료) (노른자)

1회	6.30	9kg	+	40	○수당급이량 8g
2회	9.30	4.5	+	20	○〃 체중 48g
3회	11.30	4.5	+	20	○폐사 4수(암사)
4	13.35	4.5	+	20	○도태수
5	15.30	4.5	+	20	
6	17.30	4.5	+	20	

※ 오늘부터 무척 활발하며 삿갓 주위를 빙빙 돌며 운동을 많이한다.

※ 추백리 증세가 나타났다. 증세는 흰설사를 하고 항문이 지저분하며 졸고 변은 끈끈한 것이 특징이다(설사는 끈끈하지 않음).

추백리는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가 안 되므로 병이 발생 했을때는 격리하고 과감히 도태시켜 태우거나 땅 깊이 묻는다.

병아리 구입시는 큰 부화장에서 종계관리가 잘 된 신용있는 곳에서 구입해야 한다.

제5일

※ 금일부터는 초이사료를 완전배합 초생추사료로 바꾼다.

완전배합초생추사료

1회	10kg	※ 급이시간은 전파 동
2〃	6	일함.
3〃	6	○ 수당급이량 10g
4〃	6	○ 폐사 1 (익사)
5〃	5	○ 도태
6〃	6	

※ 갑자기 사료를 바꾸어서 식욕이 많이 떨어져 표준량보다 적게 줌

※ 실내에 음수소독을 실시 : 저멕스 800배액 (10L에 12cc)로 벽과천정, 출입구에 조용히 분무했다.

<다음호에 연재>